

◎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에서는 지난 9월 30일 포드財團과 록펠러財團으로부터 각각 5만弗과 2만3백63弗(한화: 약 5천2백79만원)의 研究費를 지급받았다. 앞으로 2年間に 걸쳐 「韓國과 아세안關係」에 관한 研究에 着手하게 되는 이 研究計劃은 아세안의 性格과 機能 및 問題點, 아세안(ASEAN) 各國과 韓國과의 經濟 및 外交關係 擴大의 可能性을 摸索하는데 그 目的을 두고 있다. 이 研究事業에는 12名의 研究員이 參與하여 싱가포르의 東南亞研究所(ISEAS)의 協調하에 遂行되며 1983年 1월에 同研究所와 共同으로 싱가포르에서 1次 學術會議를 갖고 84年에는 서울에서 國際學術會議를 開催할 豫定이다.

한편 同 研究所에서는 韓國共產黨研究協議會와의 共同 主催로 11월 11일 亞研 세미나실에서 學術發表會를 가졌다. 이날 세미나에는 Parry Harding 博士(스펜포드大 教授, 政治學)를 招請, 「中共黨12全大會와 中國政治」라는 題目아래 主題發表를 가졌다.

◎ 釜山大學校는 지난 10월 20일 美國 U.C.L. A. 大와 學術交流協議 및 協定書調印式을 가졌다. 同校 徐柱實 敎務處長과 이루어진 이날 調印式에서는 敎授·學生의 交換, 各 單大別 相互交流, 博物館과 圖書館의 資料交換, 分野別 學術共同 研究 등 14개 조항을 논의했다.

◎ 韓國化學工學會 1982年度 秋季總會와 研究發表 및 産學協同 심포지움이 지난 10월 22, 23 양일간 東亞大學校에서 開催되었다. 大學敎授, 大學院生, 關係專門家 400여명이 參加한 가운데 열린 觸媒工學 特別講演에서는 「ZEOLITE觸媒의 特性(漢陽大 하백현敎수)」, 「ZEOLITE의 새로운 應用(延世大 이한주敎수)」, 및 「일산화탄소의 산화반응(서울대 벽파정敎수)」 등 3개의 演題에 대해 主題講演이 實施되었다. 같은날 下午부터는 「肥料工業技術의 方向摸索」에 관한 産學協同 심포지움을 비롯하여 各 分野別 研究發表會가 있었다.

◎ 12回 東洋學 學術會議가 10月 23日부터 이틀간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主催로 開催되었다. 漢字文化圈 안에서의 韓國文化의 本質과 特質을 糾明하기 위해 열린 이 회의에서 「朝鮮前期 藝術部門의 音樂과 宴會」에 대해 朴天奎 敎授 등 6명이 主題發表를 가졌다.

◎ 大韓電氣學會 電氣器機研究會 學術發表大會가 11월 6일 釜山 東亞大學校에서 開催되었다. 研究論文 交換과 技術向上에 目的을 둔 이번 大會에는 關係敎授, KAIST 研究員 및 關係專門家 150여명이 參加, 16편의 論文이 發表되었다.

◎ 建國大學校 中共問題研究所에서는 지난 12월 12일 「12全大會 以後의 中共의 指向」이란 主題로 학술발표회를 가졌다.

4個分科로 나뉘어 進行된 이날 發表會에서 제 1분과는 「中共의 새 憲法에 따른 權力構造와 國內政治路線」이란 論題로 李承憲敎수(建國大)가, 제 2분과는 「四大 現代化와 中共의 農業經濟政策」이란 論題로 徐鎮英敎수(高麗大), 제 3분과는 「中共의 外交政策方向과 韓·中共關係」란 論題로 羅昌柱敎수(建國大), 제 4분과는 「中·蘇關係 및 美·日關係의 展望」이란 論題로 安秉俊敎수(延世大)가 각각 발표하였다.

◎ 崇田大學校 大田分校가 大田崇田大學(가칭으로 分離·獨立運營되게 됨에 따라 83학년도 全國의 大學(校)수는 모두 98個 大學으로 늘어나게 되었다.

지난 11월 2일 崇田大學校 總長 會議室에서 열린 同校 設立을 위한 1차 全權委員會에서는 大田 캠퍼스의 法人名稱 및 學校法人 定款의 制定, 理事長선출 등을 결의하였다.

그 주요 골자를보면 學校法人 명칭을 「大田基督學園」으로 결정하였으며, 理事長에는 한완석(전남 광주제일교회 목사) 理事가 選任되었다. \*